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통하여 본 시인 조기천의 문체적특성에 대한 분석

정 두 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서사시〈백두산〉을 지은 조기천은 자기 문체를 가진 재능있는 시인이라고 할수 있다. 그가 쓴 시적표현은 매우 독특하고 기발한것이기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모방할수 없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2페이지)

시인의 개성적특성은 바로 문체적특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어휘표현을 다루는 솜씨, 기교는 소설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글에서는 시인 조기천의 문체적특성을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놓고 분석하려고 한다.

시인 조기천의 문체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잠재적어휘들을 많이 활용한것이다.

잠재적어휘란 시인이 새로 만들어 쓴 어휘 즉 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어휘를 말한다.

시인 조기천이 쓴 장편서사시 《백두산》에는 잠재적어휘들이 많이 들어있다.

실례로 《손싸래》, 《가담가담》, 《웅실거리다》, 《귀뿌리》, 《첩첩층암》, 《청청밀림》, 《중중심처》, 《휘끗어올리다》, 《소품치다》, 《빼우다》, 《쌔우다》 등을 들수 있다. 이 단어들은 처음에는 사전에 오르지 않았으나 그후에 사전에 올라 씌여지게 되었다.

《귀뿌리》는 두개의 명사말뿌리 《귀》와 《뿌리》가 합침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어로서 《귀》에서는 느낄수 없는 새로운 의미—정서적색채를 띠고있다.

《손싸래》는 《손싸다》라는 형용사에 뒤불이 《래》가 붙어 명사로 되면서 《손을 재게 놀리며 만지는 행동》을 의미하는 새로운 단어로 되었다.

《첩첩층암》은 포겐다는 뜻을 가진 《첩》자를 반복시켜 부사 《첩첩》을 만들고 명사 《층암》과 합쳐 《겹겹이 층을 이룬 바위》라는 뜻으로서 종래의 《층암절벽》이라는 의미와 다른 색채를 띠고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청청밀림》, 《중중심처》도 만들어졌다.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
별천지의 화원인양 화해에
불꽃이 나뭇기고
재생의 열망을 휘끗어올리며
화광이 춤추는데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짚고 웨치는 김대장—

《휘끗어올리다》라는 뜻은 매우 크게 끌어올린다는 말이다.

《휘》는 앞불이로서 정도나 규모가 매우 크다는것을 나타내는 형태부이고 《끗어올리다》는 《끌어올리다》의 변종으로서 《휘끌어올리다》에서는 느낄수 없는 의미—정서적색채를 준다. 《웅실거리다》라는 시어는 보천보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여 흥분과 격정의 파도속에 휩싸인 모습을 매우 생동하게 형상한 시어로서 웅장하고 넘실거리는 밤바

다의 풍경을 군중에 비유하여 흥분과 걱정 의 파도에 휩싸인 인민들의 모습을 살아움직이듯이 묘사한것이다.

시인 조기천의 문체적특성은 다음으로 대상이나 환경에 맞게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도록 자유분방하게 어휘를 활용한것이다.

시를 쓸 때 같은 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개성에 따라 언어수단들은 달리 선택되게 된다. 시인이 어휘수단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시인이 어휘를 얼마나 풍부하게 소유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우선 조기천은 뜻같은말을 적극 리용하였다.

조기천이 뜻같은말을 적극 리용한것은 뜻같은 시어가 뜻은 같지만 청각에 주는 정서적색채는 같지 않다는 점을 중시하였기때문이다.

실례로 《령감》, 《로인》, 《늙은이》, 《두상》 등은 뜻같은말로서 대상에 대한 시인의 태도, 사상감정상태를 서로 다른 표현적색채로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늙은이》와 《로인》은 중립적인 색채를 띠고 쓰이였다면 《령감》과 《두상》은 낮춤의 색채를 띠고 쓰이였다. 《밖에선 건방진 순사의 반말-〈여보 령감! 자나?〉/〈…〉/〈이 두상 웬 잠을!〉》에서 《령감》과 《두상》은 같은 대상인 《늙은 남자》에 대한 명명이지만 《두상》은 《령감》에 비해 부정적색채가 더 짙다.

조기천은 작품에서 찾았는데도 대답이 없는 꽃분이의 아버지에게 다시 《령감》을 반복하지 않고 《두상》이라고 부름으로써 끝이 난 순사의 미세한 감정세계까지 포착할수 있게 어휘를 선택하였으며 하나의 시어를 통하여 순사의 물골을 선명하게 나타내였다.

《머리 벗은 로인도 발벗은 녀인도/벌거숭이애들도》라는 표현과 《오뉴월 북어인양 벌거숭이애들/뼈만 남은 젊은이들/꼬부라진 늙은이들-》에서 《로인》은 《녀인》, 《애들》과 3:3:3의 운률적조화를 이루기 위해 쓰이였다면 《늙은이》는 《젊은이》와 4:4의 음수률을 맞추기 위해 쓰이였다.

뜻같은말에서 어휘의 미세한 의미-정서적색채까지도 고려하여 선택한 실례는 시어 《바른손》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바른손》은 《오른손》과 뜻같은말을 이룬다. 그러나 의미-정서적색채에서는 같지 않다.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부르짖었다
바른손 싸창을
바위아래로 번쩍이자
마지막 발악쓰던 원쑤 두놈이
미끄러지듯 허적여 뒹여진다-

실례에서 《바른손》은 《오른손》에 비하여 친근감과 정중성의 의미-정서적색채를 더 짙게 하여준다.

시인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감정을 가장 적중히 표현하기 위하여 《오른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손》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뜻같은말들인 《범-호랑이-백호, 계집년-아낙네-안해, 누리-세상-

세계, 재-고개-령, 남편-새서방, 낫-뺨-면목, 연기-내굴, 인민-민중-백성-군중-민족-동포-평민, 화염-불길, 생-삶》을 찾아볼수 있다.

시인 조기천의 문체적특성은 다음으로 음향이 강한 어휘들과 룰동성이 뚜렷한 시어들을 적극 리용하여 시의 감정정서적열도를 높인것이다.

음향이 강한 어휘란 된소리, 거센소리를 포함하고있는 단어를 말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작품에 적극적이고 씩씩한 기백과 힘찬 정서적박동을 안겨준다.

음향이 강한 단어들은 주로 덧붙임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것이 특징이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보면 앞붙이 《치》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휘들인 《치밀어솟다, 치뚫으다, 치받치다, 치떼다》와 뒤붙이 《치》에 의하여 만들어진 《파물아치다, 내여뻔치다, 소품치다》 등과 《빠지다》와 같이 보조적의미를 가진 단어에 의하여 만들어진 《끓아빠지다》, 《모지라빠지다》 등을 들수 있다.

백두산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여뻔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실례에서 《내여뻔치다》, 《깨치다》는 호랑이의 기세차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줄뿐아니라 음률의 맥박을 강하게 하여준다.

룰동성이 뚜렷한 어휘들도 역시 시의 정서적색채를 짙게 하여준다.

조기천은 룰동성이 뚜렷한 시어들을 쓰기 위하여 어음생략, 어음연장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실례로 《구울러가다, 끄을다, 그으다, 조을다》, 《굴러가다, 끌다, 굶다, 졸다》를 들수 있다.

이 나라의 산기슭에서
봄이면 봄마다 어김도 없이
꽃은 피고 나비는 넘나들어도
터질듯이 툅툅 부은 두다리 끄을며
바구니 든 아낙네들이 웨 헤맸느뇨?

시에서는 어음연장에 의하여 《끌며》가 《끄을며》로 쓰이였다. 만약 《끄을며》를 《끌며》로 줄인다면 시어의 형상성을 잃게 되고 운률이 파괴되어 정서가 흐르지 않게 된다.

《끄을며》는 운률적효과와 함께 형상성이 잘 보장된 시어로서 굶주려 쓰러지면서도 살아보겠다고 지친 다리를 끌며 온 산관을 헤매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방불하게 형상할수 있도록 하여준다.

어음생략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휘표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음을 조이다》를 《마음조러》로, 《기절하게》를 《기절케》로 씌으로써 운률적효과를 높여주었을뿐아니라 산문화를 극복하고 시적정서를 느낄수 있게 한 실례도 있다.

이와 함께 룰동성이 뚜렷한 시어들을 쓰기 위하여 사전에 올라있는 동사원형을 그대로 시어로 전환시켜 리용하기도 하였다. 동사원형이란 동사의 본래형태 즉 사전에 올라있

는 형태를 말한다.

동사원형은 시칭관계가 없다.

대부동 고목에도 때아닌 꽃이 피다
이밤 빨찌산부대
나홀만에 천막에 들다!

...

실례에서는 《피었다》를 《피다》, 《들었다》를 《들다》, 《잠들었다》를 《잠들다》로 쓰고 있다. 시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동사원형을 그대로 쓰고 있다.

만약 작품에서 과거형 《피었다》, 《들었다》, 《잠들었다》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표현은 보통의 표현방식으로밖에 될수 없으며 우와 같은 독특한 정서적색채와 감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시인 조기천의 문체적특성은 다음으로 형용사를 정확히 선택하여 쓴것이다.

형용사는 대상의 의미—정서적인 색채를 표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형용사를 선택할 때에는 의미—정서적인 색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조기천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형용사로써 등장인물의 성격적특질을 재치있게 구사하였다.

중년은 되리라 한 그—
그는 새파란 청년
강직하고도 인자스런 모습
호협한 정열에 끓는 눈—

형용사 《새파랗다》, 《강직하다》, 《인자스럽다》, 《호협하다》 등은 대상의 성격적특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서 매우 적중하게 선택되었다고 볼수 있다. 특히 《호협하다》는 씩씩하고 씨원씨원하며 의로운 마음을 지닌 인물의 성격적특질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철호의 성격적특질을 정확히 표현한 시어이다.

이러한 실례는 꽃분이의 성격묘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샘물을 바라보는 처녀의 생각/거울같은 물속에서/어글어글한 두눈/수심을 날날이 말하는듯—》에서 《어글어글하다》는 시원스럽고 서글서글한 꽃분이의 내면세계를 개방하는데 적중한 시어이다. 그리고 눈에 대한 묘사는 인물의 성격적인 특징까지도 표현하고있다.

빨찌산 우등불—
그것은 집이였고 밥이였다
그것은 달콤한 잠자리였고
그것은 래일의 투쟁—

우리 말에는 단맛을 나타내는 단어들로서 《달큰하다, 달달하다, 달작지근하다, 달싸하다》 등 그 수가 대단히 많다.

잠은 보통 맛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결합되어 쓰이는것이 특징이다. 즉 《달게 자다》, 《단잠》 등을 보아도 알수 있다.

《달콤하다》는 《달달하고 고소하다》는 뜻으로서 오래동안 전투와 행군으로 잠자리에 들어보지 못한 유격대원들의 잠자리에 대한 그리움을 생동하고 감칠맛있게 표현한 시어이다.

형용사말뿌리를 반복시켜 만든 시어들인 《높고낮은, 멀고먼, 기나긴, 넓으나넓은, 머나먼, 타고탄》 등의 시어들도 감각적인 표상을 주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시어들은 운률조성과 강조의 색채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시인 조기천의 문체적특성은 이밖에도 의성의태어와 감동사를 적극 활용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의성어는 소리를 본딴 부사이며 의태어는 모양을 본딴 부사이다.

《따-따-따-따》, 《꽁-쿵》, 《땅-땅》, 《처억-처억》, 《씩-씩》, 《푸-푸》, 《쿨-쿨》, 《하-하-하》, 《빠꼭-빠꼭》, 《따-웅》, 《잉-잉》, 《꽝-꽝》, 《꽁-꽁》, 《와-와》 등의 시어들은 표현의 생동성을 보장하고 운률조성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오오-압록강! 압록강!/허나 오늘밤엔 그대 날뛰라/격랑을 일으켜/꽁-꽁- 강산을 울리라/.../와-와- 격전을 부르짖으라!》에서 《꽁-꽁》과 《와-와》는 서로 대응되면서 운률을 조성하고있으며 《대장도 알기전에/소잡을 차림 서둘렀다-/씩-씩- 칼도 갈고/모닥불도 푸-푸- 피우고》에서 《씩-씩》과 《푸-푸》를 조화롭게 대응시켜 운률을 조성하고있다.

감동사는 감정분출의 계기점에 쓰이므로 표현적효과가 매우 높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보면 감동사가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례로 《에그! 가야지!》는 꽃분이의 결심을, 《아이고! 철호동무!》에서는 반가움을, 《아이고 참! 용서하옵소!》에서는 부끄러움을, 《아, 나도 그래리라!》에서는 의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있다.

작품에서 감동사는 거의 모든 대사들에 쓰임으로써 꽃분이를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처럼 시인 조기천은 자기의 문체를 뚜렷이 보여준 재능있는 시인이였다.

모든 창작가들은 오늘도 시대적명작들과 함께 우리 인민이 추억하는 재능있는 작가들의 우수한 창작경험을 연구하며 작가적자질을 적극 높임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